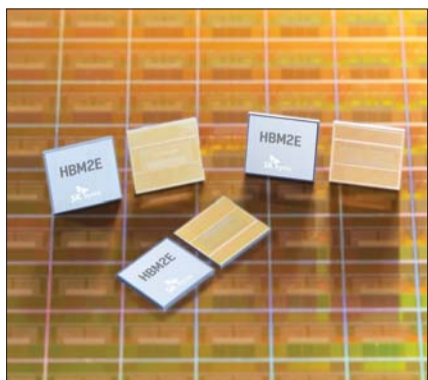


# ‘영화 124편 전송 1초’... SK하이닉스, 최고속 D램 양산

D램 대역폭 올려 속도 높여  
차세대 AI 시스템에 최적화  
용량도 2배 커진 16GB 구현



SK하이닉스 HBM2E D램.

SK하이닉스도 초고속 D램 양산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 초 미세화에 이은 후공정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HBM2E’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발에 성공한 이후 10개월만이다.

HBM2E는 D램 대역폭을 올려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다. 고도의 연산력을 필요로 하는 딥러닝 가속기와 고성능 컴퓨팅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최적화한 메모리 솔루션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

초로 HBM D램을 출시하며 초미세 공정에서의 열세를 후공정으로 극복해낸 바 있다. 그러다가 HBM2E 양산에서는 삼성전자에 선수를 빼졌지만, 결국 양산에 성공하며 기술 격차를 극복해냈다.

SK하이닉스의 HBM2E는 초당 3.6 Gbps(기가비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며, 1024개 정보출입구(I/O)로 1초



SK하이닉스 HBM2E D램을 개발한 직원들.

/SK하이닉스

에 460GB(기가바이트)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는 풀HD급 영화 124편을 1초에 전달하는 속도로, 현존하는 D램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용량도 8개 16Gb 칩을

TSV 기술을 활용, 수직 연결해 이전 세대 대비 2배 이상 큰 16Gb를 구현했다.

SK하이닉스 GSM담당 오중훈 부사장은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 제품을 개발하는 등 인류 문명에 기

여하는 기술 혁신에 앞장서왔다”며 “이번 HBM2E 본격 양산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업계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세 공정이 수나노대로 떨어지면서 개발 속도와 효율이 지연되는 상황, 딥러닝 등 빠른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크게 늘면서 후공정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등 업계는 일찌감치 후공정을 대거 내재화하고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전기의 차세대 패키지 사업을 인수하며 후공정 부문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SK(주) C&C “초보자도 ‘AI 전문가’ 돼요”

AI 플랫폼 론칭 기념 온라인 세미나

AI 데이터 분석과 플랫폼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가 열린다.

SK(주)C&C는 ‘시티즌데이터사이언티스트(이하 시티즌)를 위한 AI 플랫폼 론칭 웨비나’를 오는 8일에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시티즌이란 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된 초보자로서 자신의 업무에 AI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누구나 웨비나에 참여 가능하며 7일까지 등록 사이트나 클라우드제트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SK(주)C&C 시티즌들이 SK(주)C&C의 AI 플랫폼을 활용해 실무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의 재화와 서비스에 AI와 데이터를 접목시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창출하고 외부 디지털 협력자들과 연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플랫폼 경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플랫폼 레볼루션’의 저자 마셜 벤 엘스타인과 캐나다 AI 솔루션사인 엘레멘트 AI사의 CEO인 장 프랑스와 가네 등이 출연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시티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디지털 플랫폼 경제 창출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SK(주)C&C 이기열 BM혁신추진총괄이 ‘SK(주)C&C AI 통합 플랫폼’ 주제 발표에 나서 디지털 시대 시티즌의 등장 배경과 이들이 만들어낼 디지털 업무 및 비즈니스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티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SK(주)C&C AI 플랫폼의 지원과 기여를 강조한다.

SK(주)C&C의 김영대 디지털 테크센터장은 우버와 에어버스, 넷플릭스 사례를 통해 전통 산업 서비스가 플랫폼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AI 플랫폼을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했는지 설명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GS칼텍스, 복합수지 기반 친환경 경영 박차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량 10% 넘어  
폐플라스틱 활용 ‘업사이클링’ 확대

GS칼텍스가 자원 효율화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원료 적용 확대에 나선다. GS칼텍스는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량이 전체 복합수지 생산량의 10%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을 위해 재활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를 연간 6.1만톤 감축해 온실가스 배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나무 93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으며, 자동차 연간 배출가스 기준 환산시 승용차 3만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과 동일하다.

GS칼텍스는 앞서 2010년부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복합수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친환경 복합수지



GS칼텍스의 친환경 복합수지 인포그래픽.

연간 생산량은 2만5000톤으로 초기 생산량에 비해 2.5배 이상 성장했다.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물성의 재료를 혼합해 성능, 품질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기존의 채굴, 사용, 폐기에 의존하는 자원 소모적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 폐기물 최소

화에 따른 효율적 사용으로 자원 순환 비율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방식이 필수적이다”며 “GS칼텍스는 향후 글로벌 고객사와 협업을 통해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상품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S칼텍스는 연산 30만톤의 복합수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준중형 자동차 1대를 제작하는데 복합수지가 약 50kg가량 들어가며, 준중형 자동차 6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특히 자동차 및 가전용 소재인 복합수지는 2006년 중국 허베이성 랑팡, 2010년 장쑤성 쑤저우, 2011년 체코, 2016년 멕시코 등 중국은 물론 유럽, 북미 시장에도 진출해 고품질의 소재를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SKT, ‘5G 인빌딩 중계기’ 글로벌서 인정

‘스몰셀 어워드’서 수상

SK텔레콤은 스몰셀 포럼이 주최한 ‘스몰셀 어워드 2020’에서 ‘스몰셀 설계 및 기술 상용화’ 부문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스몰셀 포럼은 AT&T, 보다폰 등 세계 유수의 이동통신사 60여 곳과 삼성전자, 에릭슨, 화웨이 등 통신장비 제조업체 90여 곳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매년 혁신적인 스몰셀 기술 및 상용화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스몰셀 설계 및 기술 상용화’ 부문에서 수상한 ‘5G·4G 듀얼 모드 RF 중계기’는 실외 기지국의 5G·LTE 전파를 받아 빌딩, 터널, 지하공간 등 전파가 닿기 어려운 실내로 증폭·확산시켜 통신 커버리지를 넓히는 핵심 장비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류탁기 SK텔레콤 엑세스 네트워크 개발팀 리더(왼쪽 1번째)와 직원들이 스몰셀어워드에서 수상한 듀얼 모드 RF 중계기를 들고 스몰셀 어워드 수상 화면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5G와 4G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듀얼 모드 RF 중계기를 상용화했으며,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협력해 유럽의 5G 환경에 최적화했다. 지난 3월 독일 현지에서 필드 검증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3분기부터는 고객을 대상으로 체험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김나민 기자 silkni@

## LG전자, 빌트인 ‘시그니처’ 와인셀러 출시

아일랜드 빌트인으로 동선 최적화

LG전자가 새로운 빌트인 냉장고를 국내에 선보인다.

LG전자는 2일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인 아일랜드 와인셀러와 서랍형 냉장고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아일랜드 식탁이나 조리대 아래에 빌트인으로 설치하는 언더카운터 타입이다. 오픈형 주방이 갈수록 늘어나는 인테리어 트렌드와 홈코노미 라이프 트렌드에 주목해 개발했다. 아일랜드 식탁을 중심으로 가족 모두가 음료, 간편식품, 식재료 등을 쉽게 보관하고 꺼낼 수 있도록 주방의 동선을 최적화하고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아일랜드 와인셀러는 위쪽과 아래쪽 공간의 온도를 서로 다르게 유지할 수 있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분

해 최대 41병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와인 맛, 풍미, 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 습도, 온도를 최적으로 유지한다. 와인셀러 내부 선반의 고급스러운 너도밤나무 원목 소재와 외관의 티트 글래스는 인테리어 가치를 높인다.

편의 기능도 다수 탑재했다. 고객이 다가가면 와인셀러가 이를 감지해 내부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글래스 도어 왼쪽 상단에 손을 대면 문이 10도 가량 자동으로 열린다. 이어서 별다른 동작이 없으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조명이 서서히 꺼진다.

아일랜드 서랍형 냉장고는 위아래서랍 모두 식품을 냉동하는 영하 23도(°C)에서 쌀·잡곡·열대과일을 보관하기 좋은 영상 10도(°C)까지 필요에 따라 19단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냉장고는 89L 용량으로, 내부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적용해 정온 유지 및 위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서랍형 냉장고, LG전자

생 관리에 뛰어나고 내구성도 높였다. 소프트 클로징 도어로 안전하게 서랍을 열고 닫을 수 있고 도어를 끝까지 닫아줘 냉기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했다.

아일랜드 와인셀러의 가격은 300만원이며 서랍형 냉장고는 스테인리스 패넬 적용 시 350만원이다.

/김재용 기자